

## 여름철 자연재난 사전대비,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기울여 준비한다

- 여름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점검 TF 3차 회의 개최(4.16~17.)

- 행정안전부(장관 윤호중)는 4월 16일(목)부터 17일(금)까지 ‘여름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TF’ 3차 회의를 개최했다.
  - 정부는 본격적인 우기 전까지 여름철 호우·태풍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관계기관이 참여한 협의체(TF)를 구성하고, 기관별 준비 상황을 꼼꼼히 점검\*하고 있다.
    - \* (1차, 4.3.)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 추진방향, (2차, 4.14.) 하천재해 안전관리 방안
  - 이번 회의는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사전대비 과정에 반영하기 위해, 중앙 및 지방정부 담당자 27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최초로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워크숍 방식으로 진행했다.
- 회의에서는 올해 여름철 자연재난에 대비해 ‘인명피해 제로화’를 위한 정부의 주요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, 이러한 정책들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작동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.
  - 특히, 위험 상황 시 주민의 안전한 대피를 돕는 ‘주민대피지원단’이 올해부터 전국 시·군·구 단위로 확대됨에 따라, 실제 대피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직접 듣고 개선할 점을 의논하는 시간을 가졌다.
- 윤진호 자연재난대응국장은 “기후변화로 인해 예측을 뛰어넘는 기상 상황이 잦아지고 있는 만큼, 인명피해를 막기 위한 철저한 사전 대비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”라며,
  - “정부는 국민께서 안전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,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여 더욱 촘촘하고 실효성 있는 재난 대응체계를 마련해 나가겠다”라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자연재난실 자연재난대응과	책임자	과 장	신일철 (044-205-5230)
		담당자	사무관	최희동 (044-205-5236)

